

박기원 × 이진형
서용선 × 김민우 × 여송주
신학철 × 김기라
이용백 × 진기종
정정엽 × 장 파
조숙진 × 이희준
채우승 × 최수련
최진욱 × 박유미
홍명섭 × 김희라
공성훈
김차섭
조성묵

아르코미술관 50주년전

**2023.12.8 -
2024.3.10**

아르코미술관 제 1,2전시실,
공간열림

어디로 주름이 지나가는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은 2024년 개관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어디로 주름이 지나가는가》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 전시는 아카이브 섹션과 함께 미술관 본관 전시로 구성된다. 아카이브 섹션은 미술관의 지나온 발자취를 기록한 책자, 리플렛, 사진, 영상 등의 전시 자료 중 자체 기획 중심의 아카이브 자료 200여 점을 선보인다. 이와 더불어 미술관 내·외부 관계자 인터뷰, 역대 전시를 일괄하는 연표와 함께, 미술관의 핵심적인 변화 시기 및 특징을 주목한 영상을 선보이며 아르코미술관이 지나온 발자취 안에서 향후 미술관의 모습을 그려보고 미래의 가능한 방향을 유추해 본다.

한편 본관 전시는 미술관의 특징을 소재로 한 신작들을 소개하거나,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반적인 기념 전시의 구성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미술관을 둘러싼 역동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또 다른 시공간을 창출하고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번 전시가 하나의 연결되는 공간이자, 전시 요소들의 교차 안에서 발생하는 의미 생성의 집약체로 역할하도록, 오늘날 미술관의 기능 중 하나인 교류 중심의 장소성을 본질적 요소로 채택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계기가 작용한다. 하나는 50년 동안 미술관과 관계 맺었던 작가를 비롯한 역대 운영자문위원, 내·외부 학예사 등 직간접적 관계의 시간이 축적된 이 장소가 현재 그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두 번째는 2000년 이후 급증한 제도권 밖 기관들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인적 교류의 장이었음을 고려할 때 제도 기관으로서 아르코미술관은 교류와 관계 맺음을 위해 어떤 실험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계기를 통해 미술관에서 주도적으로 작가를 선정하는 권한을 내려놓고 다양한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참여를 확장해 가는 하나의 연결 성과로서의 미술관을 상정해 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역대 운영자문위원 및 내·외부 학예사에게 미술관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아르코에서 다시 만나고 싶은 작가'에 대한 의견을 수집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주요 전시에 참여했던 작가를 중심으로 초청 작가를 구성한 후, 그들에게 함께 교류하고 싶은 서로 다른 세대의 작가들을 추천받았다. 참여 작가들은 평소 작업에 관한 관심만 있을 뿐 직접 대면한 적 없는 작가부터, 평소 선호배로 알고 지냈으나 작업으로 교류해 보지 않았던 작가 등 총 아홉 팀의 서로 다른 관계성을 지닌 작가들로 최종 구성되었다. 결과적으로 후배 작가 중 약 80% 이상이 아르코미술관과 처음 만나는 작가이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전, 목포 등 지역 작가가 고루 안배되어 미술관의 인적 관계 확장의 계기가 되었다.

이번 전시는 이렇듯 참여 작가들의 교류에서 파생된 결과물로 서로 다른 세대를 경유한 작가들의 만남이 동시대 미술계에 던지는 화두를 비롯하여, 공동 혹은 개별 작업으로 귀결되는 작업의 변별 지점과 교류 및 접점의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술관의 주요 기능이었던 작가 발굴 및 재조명, 실험적 작품의 창작산실로서의 미술관의 역할을 상기하며 관계의 확장과 교류로 형성되는 예술창작의 방법론을 고찰한다. 전시에 참여하는 총 아홉 팀의 교류 형식은 매체 속성의 차이로 주제를 드러내거나, 결과물의 시각적 연결, 단일 주제의 공동 프로젝트, 서로의 창작 방식의 차이를 작업의 재료로 삼는 등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다. 또한 주제는 각 작가가 현재 주목하고 있는 프로젝트 및 미발표작을 중심으로, 예술 형식 자체에 천착하거나, 지역 사회 및 역사적 사건을 고찰하고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전망하는 등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형식적, 내용적 양상을 드러낸다. 한편 미술관 전시사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던 작고 작가 중 세 명의 유작 및 미발표작을 선보임으로써 그동안 미술관이 조명해 온 작가의 작업 세계를 더욱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전시명 《어디로 주름이 지나가는가》는 들뢰즈의 저서 『주름: 라이프니츠와 바르코』에 등장하는 문구다. 여러 흔적과 접촉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생긴 주름이 지닌 다양체의 속성이 미술관에 각인된 각각각색의 흔적이 만든 역사적 산물의 현재를 만들고, 향후 접촉의 계기를 열어 놓는다는 의미로 확장해서 적용하였다. 즉 우리의 현재가 접점의 궤적과 경로의 결과물이라는 점, 그리고 향후 미술관의 미래가 어떤 접점들로 그려질 것인가에 대하여 주목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본관 전시에서 드러나는 교류 역시 두 작가 간의 접촉 궤도의 결과물이므로 이 연장선에서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번 전시는 개관 기념 전시가 갖고 있는 익숙한 전시 방법론을 벗어나, 전시를 통한 관계 형성의 틀 짜기, 선배 작가들의 기억을 이어가면서도 원래의 시간성은 탈각되기, 미술관을 접촉 지대로 스쳐 갔던 관계들의 흔적과 기억이 다른 지형으로 재구축되며 형성되는 예술 형식과 언어, 예술 경험을 다층적으로 시도해 보고자 한다.

아르코미술관 50주년전

어디로 주름이 지나가는가

최진욱 x 박유미

최진욱은 회화 언어를 통해 일상의 찰나를 포착하고 그 순간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리얼하게' 표현해 왔다. 그리고 리얼리즘의 자장이라는 조건 안에서 그의 그림은 주관적 감성과의 조화로 실내의 풍경조차 때때로 풍경의 밖과 연결되고 그림과 그림이 연결되거나 물리적 틀과 충돌하기도 하는 등 회화적 서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요소들을 지닌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학교를 떠나며》(아트사이드, 2022), 《석양의 헌법재판소》(인디프레스, 2020), 《아파트 뒤편》(인디프레스, 2018) 등이 있으며, 최근 단체전으로는 《히스테리아: 동시대 리얼리즘 회화》(일민미술관, 2023), 《렌트》(아마도예술공간, 2022), 《DMZ》(문화역서울284, 2019), 《균열》(국립현대미술관, 2017) 등이 있다. 아르코미술관 역대참여 전시로는 《최진욱: LOVE IS REAL》(아르코미술관, 2005)의 개인전을 비롯하여 《구름》(마로니에미술관, 2004)에 참여한 바 있다. 박유미는 최근 십여 년 동안 가부장제에서 타자화된 여성 특히 노년 여성의 삶과 노동을 다루는 공동체 기반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곡식이 1cm 자라면 잡초는 5cm 자란다.》(인천아트플랫폼 G1 프로젝트 스페이스1, 2023), 《어부자리漁婦地理: 바다는 가르지 않는다》(온라인전시, 2021), 《문밖 살롱》(우리미술관, 2019) 등이 있으며 최근 《점점점 유니버스 메인물류센터: 태강위크숍》(에인인력소, 2021), 《제11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하루하루 탈출한다》(온라인채널 합정지구, 2021) 등 여러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서용선 x 김민우 x 여송주

서용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 도시, 풍경, 신화, 역사를 토대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가 바탕이 된 독창적이고 강렬한 색채의 평면 작업을 지속해 왔다. 최근에는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 항일 농민 운동인 신안 '암태도 소작쟁의' 항쟁을 기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시《서용선, 암태도소작쟁의 100년을 기억하다》(암태도소작쟁의 100주년 기념 전시관, 2023)가 개최되었으며, 최근 개인전 《서용선: 내 이름은 빨강》(아트선재센터, 2023)을 비롯하여 다수의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확장하는 선, 서용선 드로잉》(아르코미술관, 2016), 《작은 담론: 80년대 소그룹의 작가들》(미술회관, 2000), 《서용선》(미술회관, 1989), 《82 현대회화》(미술회관, 1982)에 참여한 바 있다. 한편 목포에서 활동하는 여송주는 직접 경험한 것들을 다양한 시각적 매체로 표현해 왔으며 최근에는 소통의 형태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이를 재현하는 방식에 몰두한다. 특히 작가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소재로 지역성이란 존재하는가가 주요 화두이다. 마찬가지로 목포에 거주하는 김민우도 개인적 심상과 주변 환경에 대한 단상을 드로잉과 페인팅으로 표현해 왔다. 이는 시각적 불안전함, 왜곡과 익살스러운 블랙 코미디 같은 이야기로 재현된다. 두 작가는 각각 《답변이 필요 없는 나날들》(화이트블럭, 2022), 《PROJECT.WLS》(목포대학교 도립 갤러리, 2023), 《국제 수목 비엔날레》(목포 문화예술회관, 2021), 《환기의일기》(김환기 고택, 2022) 등에 참여했다.

이용백 x 진기종

이용백은 동시대 한국 사회와 문화의 특징적 현상이나 쟁점을 단일 매체나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확장적인 미디어 활용으로 구현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고차원 인식의 전환을 일으켜 왔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브레이킹 아트(제1회 자선미술상 수상전시)》(토탈미술관, 2020), 《한국적 모자이크》(매향리 스튜디오, 2018), 《낯선 산책》(학고재, 2016), 《핸드헬드 슈팅》(슈퍼나라이 베르크사우, 독일, 2014), 《사랑은 갖지만, 상처는 아물겠지요》(제54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이탈리아, 2011) 등이 있으며, 최근 단체 전시로는 《너와 내가 만든 세상》(포도뮤지엄, 2021), 《잃어버린 시간의 연대기》(서울대학교미술관, 2021), 《유에스비》(부산시립미술관, 2020), 《코리아아이2020》(에르미타주 미술관, 러시아 & 사치갤러리, 영국, 2020) 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아르코미술관의 대표적인 전시 사업이었던 《트랜스POP: 한국 베트남 리믹스》(아르코미술관, 2007), 《작은 담론: 80년대 소그룹의 작가들》(미술회관, 2000), 《한국현대미술 신세대흐름전: 기술과 반기술》(미술회관, 1996)에 참여한 바 있다. 진기종은 동시대 지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갈등, 의문스러운 현상을 마찬가지로 미디어,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독특한 세계관으로 재구성해 왔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21세기 박제사》(신도문화공간, 2019), 《무신론 보고서》(갤러리현대, 2015), 등이 있으며 최근 《빛도 꿈을 꾸는가: 베일벗은 플렉스》(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2023), 《푸른 구슬의 여정》(여수국제미술제, 2022), 《이미지의 향연》(대구예술발전소, 2022), 《나를 만나는 계절》(대구미술관, 2022), 《너와 내가 만든 세상》(T&C재단 포도미술관, 2021), 《을지판타지아》(을지예술센터, 2020), 《원더랜드 뮤지엄: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대전시립미술관, 2019) 등 단체전 및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신학철 x 김기라

신학철은 70년대의 오브제 및 콜라주 작업, 80년대 이후의 포토 몽타주 작업 등 다양한 형식적 시도를 통해 시대가 지나며 겪는 민중의 애환과 희망을 표현해 온 한국 리얼리즘 미술의 대표작가로, 한국 근현대사 연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개인전으로는 《신학철》(신불당아트센터, 2023), 《뻐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인디프레스, 2022), 《한국현대미술 화제의 작가 신학철》(김해문화의전당, 2014) 등이 있으며, 주요 단체전으로는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국립현대미술관, 2019), 《아트비젤 홍콩》(홍콩컨벤션센터, 중국, 2018),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18) 등이 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그의 대표작 개인전 《우리가 만든 거대한 상》(마로니에미술관, 2003)을 개최하였으며 이 밖에도 《전국민족미술연합 창립기념》(미술회관, 1995)을 비롯하여 1970년대 회화의 권위에 반발했던 청년들이 결성한 단체인 '서울방법작가회'의 《1984 서울방법전》(미술회관, 1984), 《한국현대미술 80년대 조망》(미술회관, 1982), 《서울 39인의 방법》(미술회관, 1979), 《서울 29인의 방법》(미술회관, 1978), 《서울 11인의 방법》(미술회관, 1977) 전시에 참여했다. 김기라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 및 자본주의 욕망과 그 사회적 풍경을 다양한 매체로 비판적 태도로 견지해 왔으며, 시대 정신의 사회, 정치, 문화적으로 인간이 지닌 고통을 직면하고 이를 영상, 회화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해 왔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순간들》(헬로우뮤지움, 2023), 《낮도 밤도 없는 곳》(윤선갤러리, 2021), 《X 사랑》(보안1942, 2019), 《플로팅 빌리지》(갤러리노마드, 2016), 《마지막 일새》(패리지 갤러리, 2014) 등이 있다. 최근 주요 단체전으로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러게》(14회 광주비엔날레, 2023), 《움직이는 달 다가서는 땅》(3회 제주국제비엔날레 2023), 《프라다모드서울 PRADASEOUL》(KOTE, 2023), 《소장품: 그날의 이야기》(전남도립미술관, 2021), 《포에틱 디션》(포항시립미술관, 2019), 《울해의 작가상 2015》(국립현대미술관, 2015) 등을 비롯하여 아르코미술관에서 선보인 《트랜스페어》(아르코미술관, 2013), 《신세대흐름전: 우리 안의 천국》(마로니에미술관, 2002)에 참여한 바 있다.

홍명섭 x 김희라

홍명섭은 개념적 설치미술을 수행하면서 작품으로서의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예술, 사물과 예술의 의미 구축 및 해체 등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작가와 관객 간 이분법적 경계를 와해 하고 단일 주제적 시각을 벗어나 관객의 시각과 신체 개입이 허용되는 작업을 선보여 왔다. 최근 주요 개인전으로는 《레벨-게임/레벨-로지》(차스튜디오, 2022), 《러닝 레일로드》(유엠갤러리, 2022), 《토폴로지컬 레벨》(이갤러리, 2020)이 있으며, 단체전으로는 《리빙 넥스트 도어 메타-아티스트》(스페이스 테미, 2023), 《몸짓말》(경기도미술관, 2021)이 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홍명섭: 수평애의 의지》(마로니에미술관, 2004) 개인전을 진행하였으며, 《WHERE ARE YOU?》(마로니에미술관, 2003), 《디아나의 노래: 디지털의 꿈과 아날로그의 욕망》(미술회관, 2001), 《작은담론: 80년대 소그룹의 작가들》(미술회관, 2000) 등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한편 대전에서 활동하는 김희라는 결과물 중심의 자기 충족적 폐쇄성을 본질로 하는 완전체, 결정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미학을 천이나 실을 활용한 설치 작업, 회화, 부조로 표현해 왔다. 최근 주요 개인전으로는 《틈》(대동길미술관, 2023), 《틈에서》(Another동양장, 2021), 《독백》(유엠갤러리, 2020), 《경쟁지다》(동양장 B1, 2018) 가 있으며, 단체전으로는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7구역-당신의 상상공간》(구)농림축산검역본부, 2023), 《불보다 뜨겁게 바람보다 서늘하게》(대전시립미술관, 2022), 《제11회 서울국제조각페스타 모든 조각에는 비밀이 있다》(백스쿠, 2022), 《심안으로 보라》(청주시립미술관, 2020), 《대전현대미술의 태동-시대정신》(대전시립미술관, 2018) 등에 참여했다.

정정엽 x 장파

정정엽은 사라지고 유약한 존재의 저항과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몸의 언어의 일부라고 말하는 드로잉을 통해 이미지화하고 있으며 이는 삶 속에서 마주하는 존재, 보이지 않는 여성의 노동과 긴밀한 연결성을 지녀왔다. 최근 주요 개인전으로는 《모욕을 당한 자이며 위대한》(갤러리림, 2023), 《물구나무 팔》(봉산문화회관, 2022), 《여자는 길을 좋아한다》(파주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2022), 《걷는 달》(아트센터 화이트블럭, 2021) 등이 있으며, 단체전으로는 《예술사회학을 지나야 예술철학이 나온다-작가편》(서울대미술관, 2023), 《내가 그린 여자들》(한국여성재단 사옥, 2023), 《누구의 이야기》(부산현대미술관, 2023) 등이 있다. 한편 장파는 2011년부터 여성 혐오 이미지의 서사적 계보 혹은 남성 젠더 중심의 거대 서사에서 섬세하게 귀 기울이지 못했던 '여자들의 세계'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특히 여성의 신체를 중심으로 대

중문화와 미술사에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대상화되고 여성 혐오가 재생산되는지 주목한다. 최근의 주요 개인전으로는 《눈 없는 밤》(유머각각, 2023), 《특성 없는 여자》(갤러리 기체, 2022), 《Flat Hole》(전시공간, 2022), 《Women/Figure》(인천아트플랫폼 창고갤러리, 2020), 《Brutal Skins》(두산갤러리, 2018) 등이 있으며, 단체전으로는 《날것》(인천아트플랫폼, 2022), 《Linked》(갤러리 Func, 중국, 2022), 《Tangible Error》(D/P, 2020) 등에 참여했다.

조숙진 x 이희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버려진 나무 재료나 물건, 쓸모를 다한 물체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재활용하는 조숙진은 어떠한 매체를 사용하든지 소재의 고유한 가치를 찾고 그만의 독특한 미학적 언어로 전시장 내외의 공공영역으로 확장하는 다양한 작업을 해왔다. 개인전으로는 《조숙진: 목격자 III》(프란코니아 조각공원, 미국, 2023), 《On the Street: The Extraordinary Vision of Sook Jin Jo》(아멜리에 윌러스 갤러리, 미국, 2022), 《목격자 II》(제주현대미술관, 2021), 《Shanghai Black》(블랙&화이트 갤러리, 미국, 2018) 등이 있으며, 아르코미술관에서 개인전 《조숙진: 버려진 나무와의 관계 20년-뉴욕작업》(2007)을, 단체전 《컨테이너》(마로니에미술관, 2002), 《양대방당》(미술회관, 1985)에 참여했다. 최근 단체전으로는 《신나는 빛깔 마당》(국립현대미술관, 2020), 《세종대왕과 음악:치화평》(대통령 기록관, 2019), 《2018 창원 조각비엔날레》(창원 용지공원, 2018) 등이 있고, 최근 몇 년동안 (2017-2023) 니카라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 아트 체플을 디자인하고 세웠다. 한편 이희준은 그동안 주변 환경의 비례와 균형, 색채를 민감하게 살피고 그것으로부터 회화의 소재를 찾아 수집한 풍경을 확대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 수직, 수평의 색면으로 구성된 추상적 이미지를 만들어 왔다. 최근 주요 개인전으로는 《비계》(금호미술관, 2023), 《이희준》(국제갤러리, 2022), 《이미지 아키텍트》(인천아트플랫폼 G1전시실, 2021) 등이 있으며, 단체전으로는 《제22회 송은미술대상》(송은미술관, 2022), 《느슨한 포옹》(금천예술공장, 2022), 《의도적 우연》(자하미술관, 2021), 《BGA Showroom》(BGA마루, 2021), 《작아져서 점이 되었다 사라지는》(아트선재센터, 2021)에 참여한 바 있다.

조성묵(1940-2016)

1960년 국전에서 특선을 받으며 미술계에 알려진 조각가 조성묵은 한국 최초의 전위조각 단체인 원형회 및 미술단체 AG(한국아방가르드협회)에 참여하며 조각의 전위적이고 실험적 흐름을 이끌어왔다. 특히 수십 년동안 조각의 재료에 대한 고민과 실험을 바탕으로 화강암, 청동, 심지어 음식에 사용하는 국수, 빵과 같은 느낌을 풍기는 데 사용한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작고 전까지 그의 재료적 실험은 지속되었다. 아르코미술관은 1981년 미술회관 시절 《메시지》 연작을 중심으로 첫 개인전을 열었던 장소였다. 개인전 외에도 《제32회 한국현대조각회 30주년》(미술회관, 1999), 《서울국제방법-90》(미술회관, 1990), 《제18회 홍익조각회》(미술회관, 1987), 《1985 서울-빠리 방법》(미술회관, 1985), 《제4회 한-일 현대조각》(미술회관, 1985) 등의 주요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그의 작고 전 주요 개인전으로는 《조성묵》(동승갤러리, 2017), 《멋의 맛_조성묵》(국립현대미술관, 2015), 《메신전&커뮤니케이션》(제주현대미술관, 2012), 《빵의 진화》(금호미술관, 2010) 등이 있다.

채우승 x 최수련

채우승은 조각과 회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견고한 재료적 속성과 사물의 실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작업을 해왔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숨기내기》(영등포시장역 라운지사이 갤러리, 2022), 《환·멸(幻·滅)》(스페이스 개, 2021), 《채우승 작품전》(사용자공용공간 Plan C, 2021), 《헛꿈-투명의 역설: 투명하게 존재하라》(스페이스뎀미술관, 2020)이 있으며 아르코미술관 개인전 《채우승: ~머물다-가다》(아르코미술관, 2006) 및 단체전 《한국현대미술 중심의 이동》(미술회관, 1999), 《제11회 양대방당》(미술회관, 1985)에 참여하였다. 최근 주요 단체전으로는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미술》(전라감영, 2021), 《5.18특별전 별이 된 사람들》(광주시립미술관, 2020), 《더 적을 더 많음》(여수엑스포 전시홀, 2019), 《수직의 안팎에서》(팔복예술공장, 2019), 《장소를 품다-부강》(스페이스뎀미술관, 2018), 《서는 땅 피는 꽃 1980-2000: 전북미술 현장》(전북도립미술관, 2018) 등이 있다. 한편 최수련은 동북아시아의 고전적 이미지와 전통적인 동양의 신화와 전설, 괴담 등이 현재 시점에서 재현되는 양상에 관심을 갖고 이를 모티프로 하여 회화 작업을 해왔다. 최근 주요 개인전으로는 《그림 회에 그림 회》(갤러리조선, 2023), 《무중필사》(산수문화, 2020), 《태평선전》(인천아트플랫폼 원도우갤러리, 2020), 《망한 나라의 음악》(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2019)이 있

으며, 단체전으로는 《모뉴멘탈》(뮤지엄헤드, 2023), 《제9회 중근당예술지상》(세종문화회관 세종미술관, 2022), 《산의 소리: 성적 트릭스터로서 구미호》(분홍별관, 2022) 등이 있다.

공성훈(196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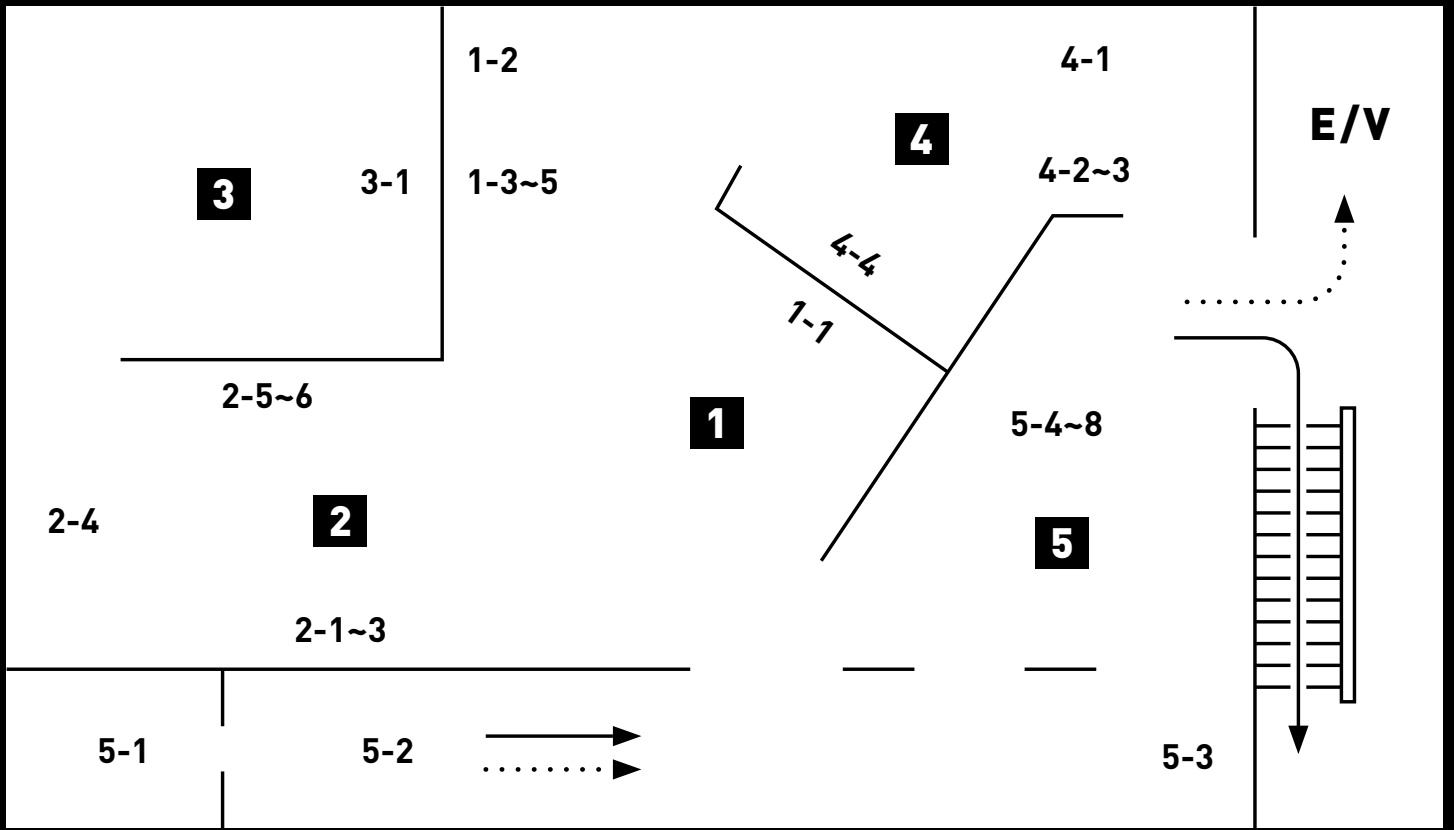
공성훈은 밤의 풍경이나 어느 모델 거리 등 주변의 풍경을 담은 평면 작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서양화와 전자공학을 전공한 특이한 이력을 지녔던 작가로 초기 작업에서는 로우 테크를 활용한 설치 작업 등 매체적 실험이 었보였다. 이후 회화야말로 사고와 행위의 프로세스 두 과정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작업이라고 깨닫고 본격적으로 회화 작업을 시작하여 이후 회화 작가로 주목받아 왔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주요 단체전에 참여하였는데 《플레이그라운드》(아르코미술관, 2012), 《2005 올해의 예술상-노미네이트 전》(아르코미술관, 2005), 《한국현대미술 신세대흐름전: 기술과 반기술》(미술회관, 1996) 등이 있다. 그리고 작고 전까지 주요 개인전이었던 《공성훈: 사건으로서의 풍경》(대구미술관, 2019), 《웅덩이》(아라리오뮤지엄, 2019), 《어스름》(아라리오갤러리, 2015), 《바람, 그리고 바다》(아라리오갤러리, 2014)에 참여하였으며, 최근 단체전 《파란, 일오키다》(국립해양박물관, 2023), 《지도와 영토》(경기도미술관, 2023), 《항해어보》(인천아트플랫폼, 2023), 《백 투 더 퓨처: 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성 탐험기》(국립현대미술관, 2023), 《HIDDEN ONE》(BUM갤러리, 2023), 《올해의 작가상 10년의 기록》(국립현대미술관, 2022) 등을 통해 작가의 작업이 지속적으로 조명되고 있다.

김차섭(1942-2022)

1970년 이후 한국 현대미술의 개념적 경향을 주도해 온 작가 중 한 명인 김차섭은 그동안 기하학적 예칭작업, 신표현주의 회화, 오브제 등의 작업을 통해 인류의 문명사, 개인사, 과학적 개념 등 다학제적 관심사와 폭 넓은 사유를 표현해 왔다. 1974년부터 1990년까지 십수 년의 미국 생활과 그 이후 한국에서의 삶은 그에게 서구문명이나 과학 기술, 나아가 한민족의 원형을 탐색하는 작업의 근간이 되었다. 아르코미술관에서는 2002년 《김차섭의 오디세이》(마로니에미술관, 2002)라는 제목으로 그의 수십 년의 화업을 집대성한 전시를 개최한 바 있다. 작고 전 주요 개인전으로는 《프로메테우스》(코리아소사이어티갤러리, 미국, 2016), 《김차섭 개인전》(갤러리현대, 2012), 《제9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대구문화예술회관, 2009), 《김차섭》(통인옥션갤러리, 2007), 《제14회 이중섭 미술상 수상 기념전》(조선일보미술관, 2003), 《김차섭》(AD&A갤러리, 일본, 2001) 등이 있으며, 《한국실험미술 1960-70년대》(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구겐하임미술관 뉴욕, 2023), 《아카이브 하이라이트: 김용익, 김차섭, 임동식》(서울시립미술아카이브, 2023), 《회상》(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 2023), 《강원작가트리엔날레 2022》(강원도 평창군, 2022) 등의 단체전을 통해 그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또한 주요 소장처로는 뉴욕현대미술관(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미국), 포그미술관(미국) 등이 있다.

박기원 x 이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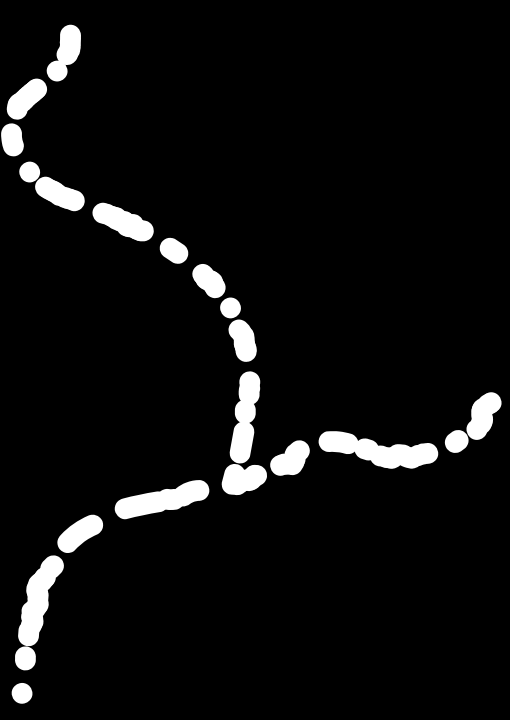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감각과 경험의 방식을 변화시켜 온 박기원은 공간을 압도하거나 의도적으로 그 조건을 변형하지 않도록 공간과의 협력적인 관계에 있는 재료들을 선택하여 공간, 사람, 작업이 모두 균형적 관계에 놓이는 작업을 해왔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웍스 퍼니처》(차스튜디오, 2022), 《대화》(서울식물원, 2022), 《연속》(313아트프로젝트 성북 스페이스, 2019), 《올해의 작가-누가 미술관을 두려워하라》(국립현대미술관, 2010)이 있으며 아르코미술관에서 《박기원: 파멸》(아르코미술관, 2006) 개인전에 참여하였다. 더불어 《구름》(마로니에미술관, 2004), 《한국현대미술 신세대흐름전: 도시, 그 삶의 공간》(미술회관, 1993) 등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최근 주요 단체전으로는 《환상의 멀티버스》(더 소소, 2023), 《자강두천》(갤러리R, 2023), 《에이피 맵 리뷰》(아모레퍼시픽미술관, 2022), 《빛으로 그리는 신세계》(청주시립미술관, 2021), 《수평의 축》(국립현대미술관, 2020) 등에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이진형은 수집한 이미지들의 형태를 감각하고 형상이나 지표 같은 부수적인 것들이 탈각되고 남은 온전한 감각에 주목하며 이미지의 생김새를 평면 위에 직역하기보다는 색채 혹은 분위기를 통해 드러내는 작업을 해왔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4painting》(Hall1, 2023), 《0》(더 소소, 2022), 《IAP 레지던시 창작제 프로젝트6, Odonata》(인천아트플랫폼 프로젝트 스페이스2, 2022), 《pinhole》(에이러운지 갤러리, 2021), 《비원향》(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2020)이 있으며 최근 단체전으로는 《Dubious Gaze》(WWNN, 2023), 《WONDERSPACES》(아트비엔, 2023), 《The SoSo special》(더소소, 2022) 등에 참여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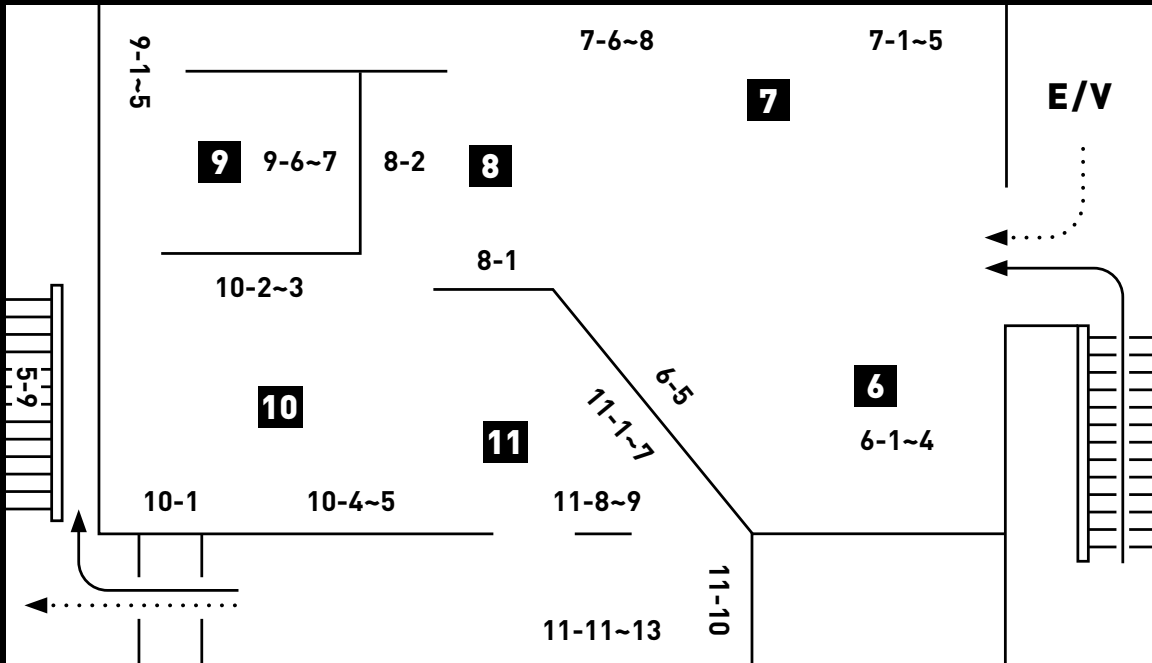
1층 제1전시실

.....▶ 휠체어 동선
 —▶ 일반관람 동선

- | | | | |
|----------|--|----------|--|
| 1 | 최진욱 × 박유미 | 4 | 신학철 × 김기라 |
| 1-1 | 박유미, 〈어부漁婦〉, 2023,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6분 56초 | 4-1 | 신학철, 〈일본 관동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2023, 캔버스에 유채, 160×900cm |
| 1-2 | 최진욱, 〈여성어부 1〉, 2023, 캔버스에 유채, 130.3×89.4cm | 4-2 | 신학철, 〈비상탈출-1〉, 1973, 캔버스에 유채, 53.5×63cm |
| 1-3 | 최진욱, 〈여성어부 2〉, 2023, 캔버스에 유채, 130.3×89.4cm | 4-3 | 신학철, 〈비상탈출-2〉, 1973, 캔버스에 유채, 53.5×63cm |
| 1-4 | 최진욱, 〈여성어부 3〉, 2023, 캔버스에 아크릴, 145.5×97cm | 4-4 | 김기라, 〈눈이 멀고 병어리인〉, 2023, 2K 싱글채널 비디오설치, 8분 38초 |
| 1-5 | 최진욱, 〈여성어부 4〉, 2023, 캔버스에 아크릴, 145.5×97cm | 5 | 홍명섭 × 김희라 |
| 2 | 서용선 × 김민우 × 여승주 | 5-1 | 홍명섭 × 김희라, 〈툼〉, 2023, 실, 40×216cm |
| 2-1 | 김민우, 〈전남 신안군 암태면 단고리 99-1〉, 2023, 벽면에 아크릴, 390×250cm | 5-2 | 홍명섭 × 김희라, 〈발판〉, 2023, 강회유리, 옷가지, 200×200cm |
| 2-2 | 여승주, 〈4할로 하겠다〉, 2023, 프로그램(비디오로 재생), 단채널 비디오, 컬러, 무음 | 5-3 | 홍명섭 × 김희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2023, 옷가지, 가변크기 |
| 2-3 | 서용선 × 여승주 × 김민우, 〈암태소작쟁의 드로잉 애니메이션〉, 2023,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0분 9초 | 5-4 | 홍명섭 × 김희라, 〈해우〉, 2023, 의자, 160×65×70cm |
| 2-4 | 서용선 × 여승주, 〈서태석〉, 2023, 인터랙티브,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 5-5 | 홍명섭 × 김희라, 〈실루엣 캐스팅〉, 2023, 웨딩드레스, 289×340cm[타원] |
| 2-5 | 김민우, 〈변용(變容)〉, 2023, 혼합재료, 44×38×50cm | 5-6 | 홍명섭 × 김희라, 〈툼1〉, 2022, 천에 바느질, 오브제, 96×52cm |
| 2-6 | 서용선, 〈농민〉, 2023, 나무, 철제지지대, 120×120×310cm | 5-7 | 홍명섭 × 김희라, 〈툼2〉, 2022, 천에 바느질, 오브제, 100×52cm |
| 3 | 이용백 × 진기중 | 5-8 | 홍명섭 × 김희라, 〈회전문〉, 2023, 스테인리스, 옷가지, ø240cm |
| 3-1 | 이용백 × 진기중, 〈오류 부호: 포탈〉, 2023, 복합미디어 설치, 4채널 빔 프로젝션 (HD) 스테레오 사운드, 모형 배, 모터장치, 포그머신, 줌 스팟조명, 써클레이터, 비닐, 슝, 가변크기, 3분 | 5-9 | 홍명섭 × 김희라, 〈툼 3〉, 2023, 천에 바느질, 오브제, 200×45cm |
| | | 5-10 | 홍명섭 × 김희라, 〈묘비〉, 2023, 시멘트 벽돌, 색 천 조각, 100×100×160cm |



2층 제2전시실



6 정정엽 x 장파

- 6-1 정정엽, <나방5 - 나는 너를 모른다>, 2023, 광목천에 아크릴, 180x159cm
- 6-2 정정엽, <나방6 - 내가 모르는 놀라운 세계>, 2023, 광목천에 아크릴, 250x159cm
- 6-3 정정엽, <나방4 -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2023, 광목천에 아크릴, 150x159cm
- 6-4 정정엽, <나방가방무늬>, 2023, 광목천에 아크릴, 130x130cm
- 6-5 장파, <태초에 할망이 있었다>연작, 2023, 캔버스에 유채, 아크릴, 실크스크린, 259.1x581.7cm

7 조숙진 x 이희준

- 7-1 이희준, <암흑 물질>, 2023, 캔버스에 아크릴과 포토콜라주, 50x50cm
- 7-2 이희준, <중력의 중심에서>, 2023, 포맥스에 실, 철, 나무, 아크릴과 포토콜라주, 16x30x200cm
- 7-3 이희준, <성운에서 찾은 보석>, 2023, 포맥스에 글루텍, 아크릴과 포토콜라주, 16x16x16 cm
- 7-4 이희준, <성운들 속으로>, 2023, 캔버스에 아크릴과 포토콜라주, 130.2x130.2cm
- 7-5 이희준, <낮선 협곡 사이로>, 2023, 캔버스에 아크릴과 포토콜라주, 130.2x130.2cm
- 7-6 조숙진, <십자가>, 1994, 파운드 오브제, 나무창틀, 유채, 116.3x161.3x47.5cm, 아르코미술관 소장
- 7-7 조숙진, <저 너머>, 1991, 파운드 오브제, 나무패널, 혼합매체, 167.5x122.5x10cm
- 7-8 조숙진, <상하이 블랙>, 2014, 파운드 오브제, 나무패널, 혼합매체, 48x55x11cm

8 조성목

- 8-1 조성목, <메신저>, 1992-96, 브론즈, 219x115x124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 8-2 조성목, <메신저&커뮤니케이션>, 1998, 브론즈, 알루미늄, 180x180x92cm

9 채우승 x 최수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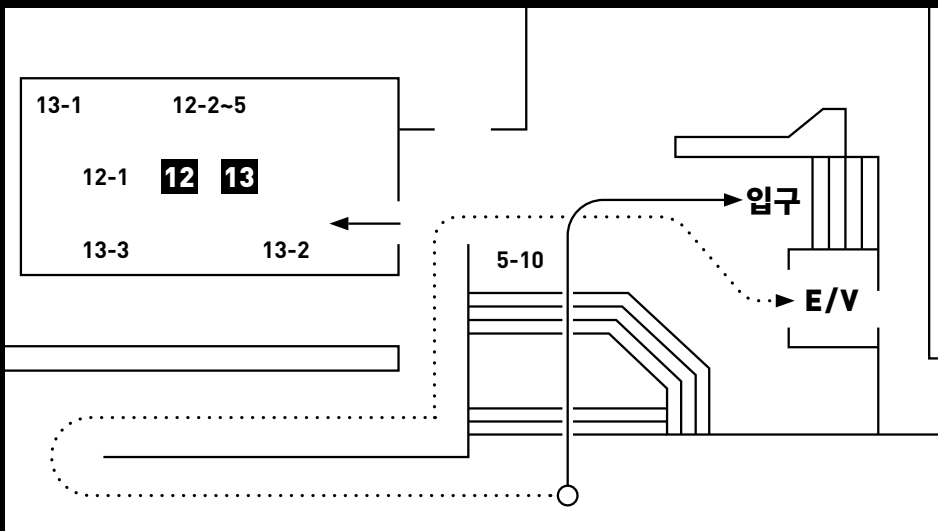
- 9-1 채우승, <무제>, 2023, 합성수지, 백색 안료, 25x16x178cm
- 9-2 채우승, <무제23-11-2>, 2023, 한지에 아크릴, 149x107x8cm
- 9-3 채우승, <무제23-11-1>, 2023, 한지에 아크릴, 149x107x8cm
- 9-4 채우승, <무제23-11-3>, 2023, 한지에 아크릴, 154x87x8cm
- 9-5 채우승, <탐>, 2023, 한지에 아크릴, 35x30x300cm
- 9-6 최수련, <장엄연습>, 2023, 인쇄된 단청지, 습자지, 유성 잉크, 액자, 294x1323cm

10 공성훈

- 10-1 공성훈, <블라인드 워크>, 1991(2023 권용주 재제작), 블라인드에 형광페인트, 알루미늄 테이프, 모터, 90x90x180cm
- 10-2 공성훈, <개>, 2000, 캔버스에 유채, 112.1x145.2cm
- 10-3 공성훈, <개>, 2000, 캔버스에 유채, 130.3x162.2cm
- 10-4 공성훈, <개>, 2003, 캔버스에 유채, 182x227cm,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 10-5 공성훈, <개>, 2008, 캔버스에 아크릴, 227.1x181.8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11 김차섭

- 11-1 김차섭, <A/P 창조 P>, 1981, 종이에 에칭, 74x93cm
- 11-2 김차섭, <1st state, 창조 p>, 1978, 종이에 에칭, 74x93cm
- 11-3 김차섭, <A/P 2nd state 창조 P>, 1978, 종이에 에칭, 74x93cm
- 11-4 김차섭, <A/P 3rd state 창조 P>, 1978, 종이에 에칭, 74x93cm
- 11-5 김차섭, <A/P 4th state 창조 P>, 1978, 종이에 에칭, 74x93cm
- 11-6 김차섭, <1/7 창조 P>, 1978, 종이에 에칭, 74x93cm
- 11-7 김차섭, <휴전선과 삼팔선>, 1995, 캔버스에 유채, 75.7x75.7cm
- 11-8 김차섭, <약 8센티미터>, 1983, 부분적으로 탄 나무, 38.5x67.5x3.5cm
- 11-9 김차섭, <작업노트> 복사본, 2020-2022, 종이노트, 24.7x19cm
- 11-10 김차섭, <아날렘마(8)>, 2007, 캔버스에 유채, 46.5x141.5cm
- 11-11 김차섭, <지도 1991.7.3>, 1991, 캔버스에 배접한 지도, 50.7x75.5cm
- 11-12 김차섭, <지도 북두칠성>, 연도미상, 캔버스에 배접한 지도, 63x96cm
- 11-13 김차섭, <지도 1993.9.31>, 1993, 캔버스에 배접한 지도, 72x101.5cm



공간열림 및 외부

12 박기원 x 이진형

- 12-1 박기원, <웍스퍼니처>, 2023, 아연도금강판, 탁자 150x75x75cm(7개), 90x60x75cm(2개), 책장 213.5x80x30cm(7개), 책 받침대 25x18cm(30개)
- 12-2 박기원, <불이 46번>, 2023, 캔버스에 유채, 193.9x130.3cm
- 12-3 이진형, <무제(1027)>, 2023, 캔버스에 유채, 193.9x97cm
- 12-4 이진형, <무제(5499)>, 2023, 캔버스에 유채, 193.9x259.1cm
- 12-5 이진형, <무제(0718)>, 2023, 캔버스에 유채, 193.9x112.1cm

13 아카이브 자료

- 13-1 김영민, <미술관 꺼내기>, 2023,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23분
- 13-2 6699프레스, <아르코미술관 50년 전시 연표>, 2023
- 13-3 김기노, <아르코미술관 50주년 인터뷰>, 2023, 단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62분

아르코미술관(구 미술회관)은 1970년대 초 문화예술진흥법 5개년 계획의 문화 실천 목표 중 하나로 설립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속으로 1974년 안국동 로터리 근처 건물(덕수병원)에 개관하여 1979년 종로구 동숭동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다. 1970~80년대 미술회관은 저명한 대관료로 소그룹 및 단체, 실험성을 갖춘 젊은 예술인들에게 전시 공간을 대여 해주는 간접 지원활동을 통해 한국 미술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외부 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다수의 공모전 및 동인전, 지방작가초대전, 시도미술대전 수상작품전, 한국현대미술전, 국제교류전 등을 개최하면서 국내외 및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미술 문화의 균형발전 및 교류의 장이자 시각예술의 다양한 장르와 경향을 소개하는 장소로 기능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술계의 주요 흐름이었던 소그룹 및 단체 활동에 주목하는 전시를 개최하며 당대 미술계의 실험적 행보를 견인하는 중추 역할을 했다.

1990년대 들어 미술회관은 본격적으로 신진작가 지원 및 발굴을 목적으로 《젊은 작가 특별기획전》(1992), 《현대미술의 동향: 30대 작가전》(1992)을 개최했다. 이 전시들은 미술관 전시사에서 대표 시리즈로 회자하는 《한국현대미술 신세대흐름전》의 전신이다. 이는 2002년 제11회를 마지막으로 약 10년 동안 매해 도시, 환경, 신체, 기술 등 당대 주요 화두를 주제로 신진작가들을 발굴하고 실험적 창작을 통해 미래 한국 미술의 주역을 육성·지원하던 대표적 전시 시리즈였다. 그리고 오랫동안 대관 중심의 전시장, 외부 운영위의 기획에 의존하던 미술관이 본격적으로 자체 기획 중심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찾아가던 시기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전시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1980년대 말 대두된 큐레이터십 안착과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각종 국공립 운영 미술관 확충, 국제 비엔날레 개최, 사설 갤러리나 대안공간 등 다양한 유형의 전시 공간이 생성되면서 전시 공간의 절대적 부족 현상이 점차 완화되었다는 배경이 자리한다. 이러한 국내 미술계의 환경 변화에 따라 단순 간접 지원 시설 이상의 미술관의 방향성과 실효성 설정이 자연스럽게 요구되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신세대 흐름전’과 더불어 지금까지도 아르코미술관의 대표 전시 프로그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중견작가 기획 초대전이 추진된다. 이는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독자적인 작업 세계를 구축하였으나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 위상을 재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둔 사업으로 《실험미술 50년-이승택 초대전》(1997)을 시작으로 박현기(1998), 이건용(1999), 김구림(2000), 성능경(2001), 김차섭(2002), 신학철(2003) 등 지금까지 40여 명의 기획초대전을 개최하였다. 미술회관은 2002년 마로니에미술관으로 개명하고 본격적으로 미술관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재도약한다. 그리고 2004년 일반 대관전을 전면 폐지하고 자체 기획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내부 큐레이터십이 더욱 강화된 미술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체성의 토대를 마련한다. 또한 2005년 또 한 번 명칭을 변경하며 위원회의 소속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새 예술 정책,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위원회로의 전환이라는 두 계기가 있었다.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원장 중심의 독임 체제에서 문화예술인

중심의 합의체 구조로 그 위상의 변화를 맞이했고, 아르코미술관은 이와 함께 현재의 명칭으로 바꾸고 ‘동시대 예술 창작의 생산 거점이자 실험성과 국제성을 지닌 시각 문화 커뮤니티 공간 구현’으로 그 위상을 재규정한다. 미술회관 시절 장르 중심의 전시 공간은 점차 장르 통합과 해체, 표현 매체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사회와 문화의 다양성, 기술의 발전 양상, 내부 구조적인 변화 안에서 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시각예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이때 미술관은 동시대 창작 활동의 실험실이자 기획과 운영의 전문성을 토대로 한국 동시대 미술의 국제화를 주도하기 위한 대표적 공립 미술관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기 시작한다. 나아가 2006년에는 미술관 등록을 완료하고, 2007년 전시 감독제를 도입하면서 미술관 사업 운영의 체계적 틀을 갖춰나간다. 이를 위해 분산된 전시, 교육, 아카이브 사업들이 통합 관리되고, 미술관의 정체성 확립의 기틀을 다지면서 현재의 아르코미술관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한 다채로운 사업이 활기를 띤다.

2000년대 초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이후 미술관의 지리적 조건과 공간적 특징, 그리고 미술관이 지향하는 비전이나 전시 방향과 연동하는 몇 차례의 주제 기획 전시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디아나의 노래》(2001), 《공원 심포 사람들》(2003), 《이야기하는 벽》(2004), 《구름》(2004), 《쌍쌍》(2005), 《점점 발전소》(2005) 등이 있으며, 이는 《이미지 연대기》(2008), 《기억의 틈》(2018), 《기억-공간》(2023)을 통해 미술관의 소장품이나 공간을 소재로 한 전시로 이어진다. 또한 국제기획전 《새로운 과거》(2004)나 《트랜스POP: 한국 베트남 리믹스》(2007) 등을 통해 발칸지역이나 베트남 등 당시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특정한 지역 미술의 대상화를 경계하며 국제적인 문화적 활동들에 주목한 대표적 교류 전시가 개최되었다. 아르코미술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분야별 지원사업과 연동되는 주제기획전이 타 미술관과의 변별점이 되기도 한다. 그 일환으로 추진했던 대표적 전시로는 2003년, 그리고 2015년부터 몇 차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던 베니스비엔날레 귀국전 및 시각예술창작산실 선정전이 대표적이다.

미술관은 이렇듯 초기 미술회관 이후 시대의 변화와 요구에 반응하여 몇 차례의 큰 변화를 겪은 이후 지금까지 ‘동시대 시각 예술과 담론의 생산 거점’이라는 비전으로 상징적인 전시 시리즈였던 기획초대전 및 주제기획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동시대 사회적 의제를 예술 담론으로 맥락화 하여 환경, 장애, 지역 소멸 관련 이슈를 시각예술의 확장성과 실험성을 기반으로 예술의 미학적, 사회적 가치를 조명해 왔다. 대표적으로는 《더블 비전》(2020),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2021), 《투유: 당신의 방향》(2022), 《땅속 그물 이야기》(2022), 《일시적 개입》(2022) 등이 있다. 이렇듯 미술관은 50년의 역사를 지닌 채 오늘날에 이르렀고 현재는 ‘국내 대표적 공공미술관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장르와 매체를 넘나드는 실험적 예술 활동을 지지하며, 인류의 미래와 직결된 예술 활동을 통해 소통함으로써 공공미술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아르코미술관 1974~2024

아르코미술관

03087 서울 종로구 동숭길 3

02-760-4850

www.arko.or.kr/artcenter

인스타그램 @arko_art_center

트위터, 페이스북 @arkoartcenter

유튜브 ARKO Art Center

관람 시간 오전11시 - 오후7시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당일 휴무

관람료 무료

전시 해설 매주 금, 토 오후 2시, 4시^(설연휴 제외)

전시 개요

전시기간 2023.12.8.(금) - 2024.3.10.(일)

참여

박기원 × 이진형

서용선 × 김민우 × 여송주

신학철 × 김기라

이용백 × 진기종

정정엽 × 장 파

조속진 × 이희준

채우승 × 최수련

최진욱 × 박유미

홍명섭 × 김희라

공성훈 1965-2021

김차섭 1942-2022

조성묵 1940-2016

장소

아르코미술관 제1,2전시실, 공간열림^(구 스페이스필룩스)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

자료 협조

아르코예술기록원, KTV 국민방송

작품 상세설명

온라인 오디오 가이드

